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진리의 보물들(1)

우리의 창조주와 변론함

2023년

1월~3월

목 차

1. 오늘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5
2.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11
3. 불 뱀.....	17
4. 내 등불에 기름을 주소서.....	23
5. 구약의 복음.....	30
6.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36
7. 복음의 비밀.....	42
8.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	48
9.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55
10.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61
11. 옛 언약.....	67
12.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73

안식일 성경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 의성사

전 화 : 054) 435-1843

팩 스 :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 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서문

전능하신 분이 6,000년이 넘는 동안 이 땅에서 만드시고 유지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창조였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정점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이다! 이것은 이 행성에 거주하고 그 행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된 피조물의 종족이다. 인류에게 부여된 지성과 추리력으로 인해 이 종인 호모 사피엔스는 이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종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장엄하신 창조주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모든 특권과 책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우리 앞에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마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과 변론하도록 초대하신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전 세계의 안식일 학교 학생들은 핵심 주제인 “우리의 창조주와 변론함”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보물”이라는 제목의 1년 시리즈 중 첫 번째 부분으로, 영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엄청난 가치를 지닌 놀라운 진리의 보석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구원 받으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믿음과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간의 시련마저도 견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

“지성 있는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는 그 진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과 품성에 현저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의 매일의 행실에서 나타날 것이다.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확실하게 질문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 나타나는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날마다 배우고 그분의 비이기적인 삶의 본을 따라 그대의 생애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장 좋은 증거는 자기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을 증거하는 것이니 이는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증되기 때문이다.” - 너희가 권능을 받고, 121.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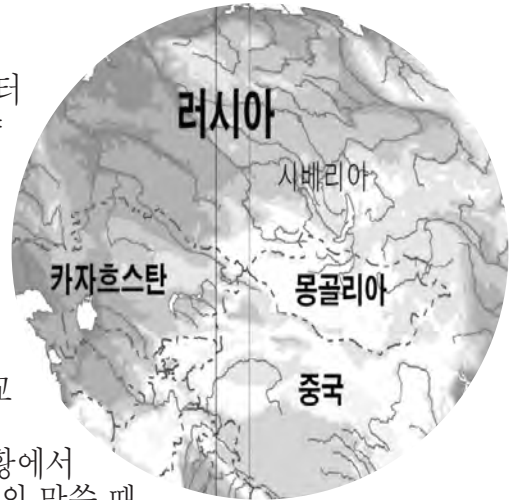
그들은 마치 소금 땅과 바삭 마른 황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사도행적, 563.

우리 모두가 이번 분기에 안식일 성경 교과로 풍성해지고 전지전능하신 분과 참으로 변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강화되기를 기도한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러시아 북부 코카서스 아디게아에 있는 교육 및 보건 센터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러시아의 영토는 17,125,191 평방킬로미터 (6,612,073 평방마일)이고 인구는 약 146,780,000명이며 그 중 1억 1,100만 명이 러시아인이다. 나머지 3,500만 명 중에는 18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주요 종교는 정교회(42%)이고 다음은 이슬람교(30%)이다. 다른 종교로는 천주교(3%), 고대 신도(동방 정교회의 한 분파), 개신교(2%), 불교, 유대교, 그리스 천주교(1%)가 있다.



1925년 이래, 개혁기별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에서 선포되었다.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투옥되었다. 일부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1990년대에 우리 교회는 자유로이 설교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적극 활용했다. 2018년 6월에 러시아 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공개 설교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막 집회와 건강 전도 사업을 할 자연의 땅을 찾고 있었다. 주님은 우리가 놀라운 산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카서스 산맥의 언덕에 약 5헥타르를 사도록 허락하셨다. 산간벽지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다소 저렴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돌보셨고 우리가 대지에서 마실 뿐만 아니라 연못을 위한 샘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 위대한 섭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여름, 우리는 이 땅에서 첫 장막 집회를 가졌다. 비록 우리는 집회를 위한 여름 건물, 식당, 방 2개 짜리 작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사가 그곳에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초대되었다. 예언의 신으로부터 오는 빛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목적에 적합한 건물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의료 선교 사업의 큰 잠재력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전 세계 형제들의 도움으로 주님께서 우리 지역 형제들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계획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기도와 재정으로 이 계획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빈다.

-러시아 연합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오늘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 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치료봉사, 486.

참조할 연구교재: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60~463,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129~137.

첫째 날(일요일)

1월 1일

1.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가.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는가?(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딤후 3:16; 벨후 1:21; 민 12:6.

“성경의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의 사상이 그 감화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적인 정신의 감명을 받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하게 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1.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꿈과 계시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신 13:1-5; 렘 29:8.

다. 꿈의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전 5:3, 7

라. 우리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시험해야 하는가? 고전 14:32; 사 8:19, 20.

2. 성경은 무오한가?

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시 12:6, 7.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진리가 가득 실려 있는 성경이 있다. 성경에는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다.” -복음교역자, 309.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 가르침이 실제로 활용될 때 사람들을 어떤 의무의 자리에도 적합하게 할 것이다. 영혼에게 날마다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젊은이들은 얼마나 주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며, 그 교훈이 모든 행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감명을 심령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인가.” -교회증언 4권, 441.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성경은 그분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오류가 없는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들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를 계시하는 자요, 경험의 시험이다.” -내가 사는 믿음, 13.

“그들[청소년들]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 때 실수함 없는 조언자와 확실한 안내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는 한 이생과 내세의 생애에 있어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손상 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43.

나. 성경에서 발견되는 원칙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마 24:35; 시 119:160; 사 40:8.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그리스도는]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써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써 제시되어야 한다.” -실물교훈, 39, 40.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연구한 성경은 인류 가족에게 영원한 행복의 거처에 도달하는 방법과 하늘의 보화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44.

“우리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결정적인 지식을 주고 영혼을 하나님과 생생하게 연결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눈앞에 두고 모든 더 나은 영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격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영원처럼 지속적인 교육이다.” -대총회 일간회보, 1899.3.6.

3.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을 받음

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렘 1:4~9; 살전 2:13.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교훈에 마음 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現實)이 되기 때문이다.” -실물교훈, 59.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여러 책들이 각기 종류가 다른 문체로 기록되었으며 여러 저자들의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계시된 진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종들의 정신과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과 상징과 표상들을 주셨으며 진리가 계시된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5.

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흔히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암 3:7; 사 46:9, 10.

“역사와 예언은 온 땅의 하나님이 택하신 빛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밀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회의주의적인 세계, 즉 고등 교육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고등 교육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완전한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참된 인간의 과학은 과학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물의 왕이심을 세상에 증명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경 훈련 학교, 1912.12.1.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와 왕, 499, 500.

4. 우리 쪽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 66:1, 2; 요 7:17; 행 17:10, 11.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가 되며, 그는 그분의 권위 외의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4.

“반증하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고, 비웃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교육이며 그들이 맺는 열매이다. 그들은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자연적인 마음은 빛과 진리와 지식과 싸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가 즐겁게 지내온 모든 침실에 계셨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러한 방에서 하늘로 올라갔는가?” -E.G.화이트 1888 자료집, 140.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교리가 옳고, 모든 겨와 오류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교리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신성한 아름다움에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엄숙한 사업에 우월감이나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E.G.화이트 1888 자료집, 46.

나. 성경의 어떤 부분이 나머지 부분보다 더 중요한가? 롬 15:4; 눅 24:27; 사 28:10.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며 인간에게 유익된 것이다.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부주의한 자들이 사막이라고 오인하기 쉬운 부분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빛을 비취 주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위에 빛을 던져 주고 있다. 두 성경은 각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62.

5. 읽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배운 것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잠 2:1~5; 시 119:11, 16.

“성령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크신 교사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고무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신령한 사물과의 친교가 이루어져 그것이 유혹에 대한 방벽(防壁)이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며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하늘이 주는 사랑의 빛이 영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실물교훈, 132.

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눅 6:46~49.

“마음에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진리를 간직한 자는 사단의 시험과 불순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대항할 수 있는 성을 쌓은 것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28.

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 119:133.

“거룩한 지혜는 주님 안에 저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시한다. 거룩한 사랑이 저들을 둘러싸게 되며 그들은 위로자인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24.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28

1. 하나님의 영감은 어떻게 인류에게 주어지는가?
2.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예언적 기록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며, 영감 받은 모든 기록에는 어떤 권위가 있는가?
4. 태도는 성경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우리는 어떻게 확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00.

참조할 연구교재: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123~128.

첫째 날(일요일)

1월 8일

1. 십자가의 군사들

가. 우리는 지상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하는가? 뱀전 5:8.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답후 2:3.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보다 더 무력한 것이 없는 듯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지속적인 투쟁의 생애이다. 그것은 싸움과 전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의 모든 행동, 그를 위한 극기의 모든 행동, 잘 견디어낸 모든 시련들, 유혹을 이긴 모든 승리는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는 발걸음인 것이다.” -내가 그분을 알려하여, 253.

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엠 6:11~17.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욕망,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의식 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순결과 빛과 사랑과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하신 분 앞으로 나올 거룩한 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그들은 또한 이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앎으로써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교회증언 5권, 112, 113.

2. 말씀의 능력

가. 말씀을 진정으로 영혼에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얼마나 꺾뚫어 보이는가? 히 4:12.

“영감의 말씀은 속고하는 자들에게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시내와도 같다.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성경을 연구하면 성령께서 가까이 오사 우리가 읽는 말씀의 뜻을 알도록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05.

“실제적인 진리가 생애에 들어와야 하며,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 품성에 있는 불필요한 자아를 잘라 버려야 한다.

말씀은 교만한 자를 낮추며 악한 자를 온유와 회개로 이끌며 불순종을 순종으로 이끈다.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죄의 습관들이 매일 생애에 나타나지만 말씀은 세속적인 욕망을 꺾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하며 사람들로 그들의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게도 해준다.” -성경주석 [화잇주석] 7권, 928.

나. 태초에 말씀이 하늘과 땅을 얼마나 빨리 창조하였는가? 창 1:1; 시 33:6, 9.

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어떤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히 11:3.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창조물이 스스로를 지키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히 1:3.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아직도 우주를 붙들고 천연계의 운영을 지속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유성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 하늘 가운데로 운행케 하신다. 해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가 공전하는 힘이나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번식하는 힘은 본래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원소들을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들을 가리우시고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그분께서는 골짜기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시 147:8).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식물이 번식하며 잎이 돋고 꽃들이 핀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5, 186.

3. 죄를 인정함

가. 하나님과 밋세바에게 죄를 범한 후의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시 51:1~4.

나. 신성한 기록에 보존된 다윗의 회개의 표현을 읽으면서, 그가 직면하게 될 결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그의 가장 깊은 염려는 무엇이었는가? 시 51:5~10.

“타락한 후 온 일 년 동안 다윗은 표면상으로는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다는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박 두하고 있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의 온 지상 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 없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범죄의 길은 흑독한 길임을 배울 것이다.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723, 724.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가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부조와 선지자, 725.

“다윗은 용서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영혼의 통회와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겸비함으로써 그가 범한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는 그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죄 사하여 주심의 보증에 대한 기쁨으로써 그는 외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2)하였다. 축복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용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이는 큰 죄의 짐을 지신 분에 의해서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이다. 그분은 위대한 중보자로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를 받는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83.

4.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

가. 더럽고 죄 많은 생애를 순결한 생애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욥 14:4; 렘 13:23; 겔 36:26, 27.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方正)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정로의 계단, 58.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 사도행적, 502.

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요 3:3.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은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하여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 정로의 계단, 58.

다. 그 변화의 증거는 무엇인가? 갈 5:22, 23.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예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화케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101.

5.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가. 부패하고 사악한 각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롬 1:16; 요 1:1; 15:3; 벰전 1:23.

“성경은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경이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수세기를 통해 만물의 시작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시간과 장면의 역사를 제시한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섭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사람들을 사단의 병거에 묶는 사슬을 끊을 복음의 막강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77.

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활성화시키며,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 왜 그렇게 필요한가? 롬 10:17; 요일 5:4. 우리는 어떻게 평생 동안 같은 유형의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골 2:6.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시대의 소망, 39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35

1. 그리스도인의 악과의 싸움은 얼마나 심각한가?
2. 이 전쟁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는 무엇인가?
3. 죄의 파괴적 본성의 깊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4. 영혼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5.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불 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 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4.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48, 49, 114~123.

첫째 날(일요일)

1월 15일

1. 아브라함의 자손

가. 영적인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게 위험한 태도를 묘사하라. 요 8:33.

나. 무엇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가? 요 8:34, 39~44.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주장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확증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분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음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그와의 그런 영적 연결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자손이 아니었다.” -시대의 소망, 466, 467.

다. 잔혹한 주인의 이 폭정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요 8:32, 36; 갈 3:29.

2.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빌라도는 재판장에서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하였는가? 요 18:38[상단]. 그가 구주의 대답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면 어떤 대답을 받았겠는가? 요 14:6.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나’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힘주어 선언했다.” -시대의 소망, 727.

나.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라. 막 12:24; 딤후 3:7.

“사두개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굳게 고수한다고 자랑해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시대의 소망, 605.

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끌릴 수 있는가? 요 12:32; 8:28; 마 11:28~30.

“율법이 백성 앞에 제시될 때마다 진리의 교사는 약속의 무지개, 곧 그리스도의 의로 야치를 이룬 보좌를 지적하게 하라.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오셨다. 공훈과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포옹했음을 분명히 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케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그대 안에 거한다. 그대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매력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것들을 그분께 고정시켜야 한다. 모든 설교에서 거룩한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 E.G.화잇 1888 자료집, 730.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겸하여 갖춘 그 품성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물어 보라.” - 치료봉사, 491.

3. 광야의 뱀들

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위해 어떤 치료법을 마련하셨는가? 치유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했는가? 민 21:6~9.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에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해졌다. 이때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 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을 것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부조와 선지자, 429, 430.

나. 이 경험은 어떻게 그 옛 뱀(계 12:9)에게 물려 고통을 받고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유사한가? 요 3:14, 15; 요 1:29.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에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들어온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시대의 소망, 439.

4.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벧전 2:21, 22), 그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끌리는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딤후 3:12; 요 3:19, 20.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흠 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은 수효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칭호도 없었지만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치 아벨이 경건치 못한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곧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다.” -각시대의 대쟁투, 46.

나. 인류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진 세상의 구세주에게 어떤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셨는가? 딤후 3:16; 요 1:1~3; 히 1:8.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분이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7.

“하나님께서서는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한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늘의 인(印)에 주의하지 않았다. 조롱하던 군중들이 고뇌의 긴 시간 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그들은 자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외투로 가리워지셨다.” -시대의 소망, 753, 754.

“그리스도의 겸비하심을 생각해 보라. 그분은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인간의 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수치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시험을 참으셨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셨다. 거룩한 영은 육체의 전(殿)에 거하셨다.” -성경 주석[화이트주석] 4권, 1147.

5.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심

가. 이 거룩하신 분은 끔찍한 비참과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 어떻게 되셨는가? 요 1:14; 히 2:9.

나. 예수님께서 흠 없는 그분의 신성에 무엇을 취하셨는지 묘사하라. 히 2:10,11,14,17.

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끄시는 능력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야 했는가? 히 2:14; 빌 2:6~8; 딤후 2:8.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이 조금이라도 자만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치욕을 좇아갈 때 시련도, 부끄러움도, 굴욕도 당하지 않을 것처럼 교만한 머리를 들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갈보리를 바라보고 자신의 중요한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얼굴을 붉히라고 말한다. 하늘의 임금께 내리신 이 모든 굴욕은 정죄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낮은 깊이로 도달할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수모 속에서 점점 더 낮아지셨다.” -성경주석[화잇주석] 5권, 1127, 1128.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워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 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정로의 계단, 4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42

1.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2.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요점을 완전히 놓칠 수 있는가?
3. 광야의 치명적인 뱀에게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갈보리의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왜 예수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성을 취하셨는가?

내 등불에 기름을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이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세 능력자들과 협력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의의 원칙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영문시조, 1901.6.19.

참조할 연구교재: 사도행적, 47~56.

첫째 날(일요일)

1월 22일

1. 성령은 누구신가?

가. 성령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창 1:2; 시 51:11; 히 9:14.

나. 하나님의 영의 광범위한 속성을 설명하고 설명하라. 시 139:7~12; 고전 2:9~12; 벧 후 1:21.

“유대인에 대하여 경륜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충만하지는 못하였었다. 여러 세대 동안 그분의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가 드려져 왔으며, 이러한 간절한 탄원중의 하나라도 잊어버린바 되지는 아니하였다.” -오늘의 나의 생애, 36.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그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셨고,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90.

2. 성령은 인격체인가?

가.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품의 몇 가지 특성을 말해보라.

- (1) 성령은 아신다. 고전 2:9~12.
- (2) 사랑할 수 있다. 롬 15:30.
- (3)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고후 13:14.
- (4) 그분은 교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한다. 딤후 4:1.
- (5) 이와 같이 그는 가르치실 수 있다. 고전 2:13.
- (6) 그분은 증인이 되실 수 있다. 롬 8:16.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버지[개인의 하나님]와 아들[개인의 왕과 구주]과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뷰 앤 헤럴드, 1897년 10월 26일.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가 생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따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하느니라.’ -복음전도, 616, 617.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개인적으로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아버지께로 가서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성령은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었다.” -원고모음 14권, 23.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615.

3. 성령은 인격체인가? (계속)

가.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

- (1)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롬 8:26, 27.
- (2) 그는 특별한 선물의 분배자이다. 고전 12:7~11.
- (3)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신다. 계 22:17.
- (4)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권할 뿐만 아니라 인을 치시거나 믿음으로 안착시키신다. 엡 1:13.
- (5) 그가 우리를 인을 치시거나 안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 경고를 받는가? 엡 4:30.
- (6) 예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칭대명사 ‘그분’과 ‘그분께서’를 성령께 24번 사용하셨다. 그러한 한 가지 예는 요 14:16, 17,이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내어 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 내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심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077, 1078.

“행복은 작은 것과 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분의 품성의 양식을 받으려면 작은 일에 영혼을 훈련하여 날마다 점진적인 성화를 시켜야 한다. 우리는 잃을 시간이 없다. 밀랍에 확실한 인상을 주기 위해 봉인을 하고 싶은가? 무리한 행동으로 그것을 굽지 않고 봉인을 조심스럽게 단단히 붙이고 밀랍이 형태를 받을 때까지 누르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것처럼 말이다. ... 이따금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 생명을 심어 주신다.” -하늘에서, 66.

“성령은 모든 진정한 기도를 보여주신다. 나는 나의 모든 중보기도에서 성령께서 나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분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결코 그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병든 사람이나 다른 필요를 위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경되어야 한다.” -영문시조, 1892.10.3..

4. 그분의 역사는 무엇인가?

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러 가셨을 때, 성령께서 구주의 인격적 대표자임을 무엇이 보여 주는가? 요 15:26; 16:13, 14.

나. 사랑하는 친구가 없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 요 16:7.

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하시는가? 요 16:8(난외 주석); 속 4:6.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 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 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에의 성향들을 이기며 그분 자신의 품성을 그분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그분의 성령을 주셨다.” -시대의 소망, 671.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인격적인 구세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격과 실제 생활에 반영된다. 성령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대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은 그대 곁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대총회 회보, 1895.2.15.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유력한 교사이시므로, 성령의 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으로 전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진리가 성령과 함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비로소 양심을 깨우치고 생애를 변화시킨다. 목사가 성경의 계명과 약속들을 익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가 하늘의 이슬을 받아 싹이 트지 않는다면, 그의 씨 뿌린 수고는 헛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우세한 위치에 있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복음교역자, 284.

5. 성령과 교회의 관계

가.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가? 요 16:13.

나.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참 교회를 찾는데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딤편 3:15.

다. 우리 삶에 성령이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눅 11:9~13.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 삼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복음전도, 617.

“교회가 작은 일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주리고 목말라하지 않는가? 주님은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협력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성령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것은 모두 필수적이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설교하라.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즐겨 성령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2.11.1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50

1. 구약 시대에 성령이 활동적인 행위자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인가?
3.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의 중보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
4. 구원의 계획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5. 사람들이 참 교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성령의 개입은 무엇인가?

세계 재난 구호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자연 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진, 쓰나미, 사이클론,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및 화산 폭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며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넓이가 줄어들드느니라 … 그가 습기로 뽁뽁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퍼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도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욥 37:9~13).

전능하신 분은 이 아름다운 행성과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궁극적인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나, 오늘날에도 영혼의 대원수의 병기고로부터 특히 이상하고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사 24:4, 5)” - 각시대의 대쟁투, 589, 590.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 재해로 인한 엄청난 인간 고통에 대처하도록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을 내밀어 지상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라고 명하신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므로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세계 재난 구조를 위한 여러분의 관대한 기부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미리 감사를 드린다!

-대총회의 형제들로부터



구약의 복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끄심에 응답하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영문시조, 1892.2.15.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63~70.

첫째 날(일요일)

1월 29일

1. 역사의 교훈

가. 우리가 역사, 특히 성스러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 3:15.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는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343.

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롬 15:4), 이 소망은 죄로 병든 영혼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롬 1:16; 눅 19:10.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를 주의하지 않고 읽는 사람은 사막밖에 볼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는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190, 191.

2. 창조의 완전성

가. 창조주의 손에서 갓 나온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 창 1:31; 전 7:29.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히 1:3)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理性)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45.

나. 인류가 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창 2:16, 17(난외 주석).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서는 에덴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물교훈, 391.

다. 사람이 실패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창 3장), 우리의 첫 조상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롬 5:12; 6: 23.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러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케 하고 멸망시킬 길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한 가지 점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경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재난의 수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유사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각 교훈은 그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떠나는 자는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산상보훈, 52.

3. 죄가 정의됨

가. 아담의 범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롬 7:7. 출 20:17; 요일 3:4과 비교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은 왜 범죄의 형벌을 당하였는가?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죄는 이 세상에 죄책과 슬픔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속절없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이다.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롬 6:23).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사형의 선고 받을 때와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부조와 선지자, 61.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468.

나.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을 범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마 1:21.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그치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적의를 품는 마음은 우주 앞에서 율법을 옹호하고 높이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믿음과 행함, 95.

“그의 백성을 율법의 범법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친구가 있다. 죄란 무엇인가? 죄의 유일한 정의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나누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만일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대는 오늘 그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분이 지금 그대의 구주이시며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범법적인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그대에게 전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대가 이것을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에덴을 잃었지만, 그대가 그것을 범하면 천국을 잃게 될 것이다.” -E.G.화잇 1888 자료집, 128.

4. 믿음의 조상

가.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갈 3:6~9.

“아브라함의 시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시험이었다. 그가 그 아래서 실패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났다면 세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과 순종의 영감을 주는 모범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귀한 것이 없음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대대로 빛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모든 은사를 주님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그대에게 맡긴 소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러면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이 맡겨질 것이다. 그대의 소유를 스스로 지켜보라. 그러면 그대는 이생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내세의 보상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1권, 1094.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창 22:9, 16~18 참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지자와 왕, 37.

나. 씨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창 22:15~18; 갈 3:16.

“이같은 언약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창 22:18)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갈 3:8, 16 참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70.

다. 왜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그의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창 26:5; 약 2:19~2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그의 행적은 그의 믿음의 특성을 증거하였고 그의 믿음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36.

5.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율법

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이 존재했다는 다른 어떤 예가 있는가? 신 5:22~26, 출 15:26; 16:28.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 이적을 목격했다. 곧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묵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때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들여야 할 의무를 짐으로 그 쉬는 날의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296, 297.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의 말과 글로 쓰여진 도덕률로 무엇을 하도록 의도하셨는가? 신 6:1~9.

다. 주님께서 구약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 입장을 유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 4:4; 3: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7:58

1. 성경 역사의 원칙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2. 에덴동산 이래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가?
3. 죄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4.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5.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그분(그리스도)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되어 있으며, 그것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것은 감사와 겸비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다. 그것은 자아를 희생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용서성이 많다. 그것은 전 생애를 성화시키고 그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뻗친다.” -교회증언 4권, 223.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303~314.

첫째 날(일요일)

2월 5일

1. 변함없으신 창조주

가.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률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마 5:17, 18.

나.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 관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 마 23:23; 빌 3:4.

“그들[유대인 지도자들]은 거룩함의 겉모습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마음의 거룩함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의(字義)는 엄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거룩함의 갱신이었다.” -시대의 소망, 174.

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재판에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 마 26:59, 60.

“구주나 그분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산 표본이셨다. 그의 생애 가운데 율법의 거룩한 명령을 범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정죄하려는 기회를 찾던 증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 8:46)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287.

2.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율법

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히 10:5~10.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가 그분의 면류관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는 계획이었다. 그분은 인성의 옷을 그분의 신성에 입히시어 인류 가족의 머리에 서게 하시며, 그분의 인성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의 인성과 섞이게 하셨다.” -남부 사업, 85.

나.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같은 구절을 읽을 때 그분의 마음에 예언된 것이 무엇인가? 시 40:6~8.

“죄와 슬픔과 사망을 가져온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늘의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담이 원수의 유혹에 굴복하여 높고 거룩한 지위에서 떨어졌을 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신비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음성이 들렸다. [시 40:6-8 인용.]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대속물이자 보증인이 되시려는 자신의 목적을 발표하셨다.” -리뷰 앤 헤럴드, 1901.9.3.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시 119:70, 72, 77, 174.

“봉사를 위해 메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 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좇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메셨다” -시대의 소망, 329.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일 4: 16) 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 119: 172)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산상보훈, 18.

3. 율법과 선지자에 따르면

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산 증거라고 설명하실 때 어떤 구절을 사용하셨는가? 눅 24:27, 44.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에서 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 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구약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각시대의 대쟁투, 349.

나. 제자들은 복음 기별을 전할 때 예수님이 약속된 분이심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행 28:23.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말에 함께하셨으므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한 사도의 호소, 그리고 그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봉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그의 선언은 약속된 메시아의 초림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설교자의 그 확신의 말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사도행적, 172, 173.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호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봉사에서 이 예언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 (눅 24:27)셨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내었다. 스테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사도행적, 221, 222.

4. 율법과 믿음

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롬 3:31.

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선포되었는가? 계 22:14.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내려 생명나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겼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사람은 생명나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고 그에게 다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다.” -영적선물 3권, 88.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짜귀에 걸려 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해 들어갔으며 그 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초기문집, 16, 17.

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히 13:8.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일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진리는 그 신성한 창시자처럼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요구 사항에 있어서 불변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조화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시켜 왔다. 그러나 만일 과거의 우리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지위를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우리는 초기의 단순함에서 떠난 이후로 영성을 얻었는가?” -영문시조, 1882.5.25.

5. 마음속에 기록됨

가. 예수님이 가졌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질 수 있는가? 히 10:16; 8:10.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시대의 소망, 308.

나. 우리가 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요일 4:19, 8.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들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시대의 소망, 22.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요 14:15~1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05

1.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셨는가?
2. 그리스도의 동일한 성품이 참 신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예수님이 메시야이심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어떤 예언을 잘 알아야 하는가?
4. 죄가 있는 인간이 죄로 인해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5.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일과 그분께서 행동하시는 동기를 깨달음에 따라 무한한 능력과 결부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분별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유익이 될 만큼은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의 능력과 만물의 아버지시며 주권자이신 분의 사랑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증언 5권, 699.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169~172.

첫째 날(일요일)

2월 12일

1. 이해하기 어려운 성구들

가. 베드로는 바울의 기록 중 일부에 대해 무엇을 관찰하는가? 벵후 3:14~17.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신 29:29.

“유능한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탐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어떤 성경 절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풀 수 없는 오묘와 사람의 생각과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논의하지 말아야 할 이 문제들에 관하여 논쟁을 일으키고자 한다.” -복음교역자, 312.

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해야 하는가? 요 7:17.

“성경 연구에 임하는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대 곁에 가까이하는 조력자의 성격이 결정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들 곁에 빛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반면에 자부심을 갖고 불경스런 태도로 성경을 펼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편견을 품으면, 사단이 그대 곁에 임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들을 왜곡된 빛 가운데서 제시할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08.

2. 분별력 있는 비밀

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셨는가?
 롬 16:25, 26; 골 1:27.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도행적, 245.

나. 성경의 어떤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도해야 하는가? 딤후 3:16, 17.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 치욕과 낙인으로 덮여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과 큰 기쁨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부끄러워하는 한 아무도 경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보물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사신 축복을 분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린 모든 극기와 희생은 드리는 자를 풍성하게 하며, 그분의 사랑하는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모든 고난과 치욕은 영광의 왕국에서 마지막 기쁨과 불멸의 상급을 증가시킨다.” -대면, 93.

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요 16:13.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유익이 없고 많은 경우에 분명한 손해가 되는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과 기도 없이 펼 때, 사상과 애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거나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은 의심으로 흐려지고, 바로 성경 연구 자체가 회의론을 강화시킨다. 원수가 사상을 사로잡고, 옳지 않은 해석을 하도록 시사한다.” -교회증언 5권, 704, 705.

3. 고귀한 도덕법

가.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십계명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 2:8, 9.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복음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시 119:45)라 하였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약 2:8; 1:25).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반세기 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킹 제임스역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되었음)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함이로다’(계 22:14)고 하였다.” - 각시대의 대쟁투, 466.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고귀한 율법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 치료봉사, 131.

나. 어떤 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정의하는가? 롬 13:9; 출 20:1~17과 비교하라.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여섯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은 크게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지라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분리된 계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서는 청중들에게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은 처음 네 계명이나 나머지 여섯 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 시대의 소망, 607.

4. 율법으로 심판받음

가. 인류에 대한 심판의 광범위한 범위를 설명하라. 전 11:9; 롬 14:10; 고후 5:10; 히 9:27.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그분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232.

나. 심판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약 2:12.

다. 이것은 어떤 율법인가? 약 2:11; 출애굽기 20장과 비교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훈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의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명해 보이셨다. 주님께서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 있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11.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 14)고 말한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2)고 권면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482.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며 그 책들에 기록된 사실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 때에,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돌비가 의의 표준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때에 남녀들은 저희 구원의 선행 조건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도 죄에 대한 핑계를 찾을 수 없다. 그 율법의 의로운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명이나 사망의 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25.

5.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

가. 율법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목적은 무엇인가? 요 3:18~21; 롬 7:7.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 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각시대의 대쟁투, 467.

나. 우리의 실제 상태를 드러냄으로써 율법은 계시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 갈 3:24.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확실한 대답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률, 곧 십계명 둘 다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모든 성소 제도의 기초이다. 아벨의 죽음은 가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희생 제물로 표상된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가인은 세상을 위하여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을 거부하였다. 이 모든 의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제도의 기초가 되셨다.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몽학 선생의 일의 시작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109.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13

1. 성경연구에서 개인의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2. 구원의 복음처럼 신비한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3. 십자가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영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품성의 위대한 표준은 무엇인가?
5. 몽학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

“십계명의 율법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표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원형을 만났을 때 희생과 헌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는 그 실체에 도달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셨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116.

참조할 연구교재: 가려 뽑은 기별 1권, 229~235.

첫째 날(일요일)

2월 19일

1. 다른 율법

가. 성경은 우리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골 2:14; 엡 2:15. 십계명의 원칙이 에덴의 완전함에 존재했는데, 이 설명이 그 율법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창 1:31.

나. 이 의문의 율법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골 2:16, 21. 이 안식일과 다른 법들은 창조 시 주어진 본래 도덕률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이 주어진 후 미래에 올 사건의 그림자인가? 골 2:17.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철일을 축복하심으로 그분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 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부조와 선지자, 47, 48.

2. 의문의 율법

가. 장차 오는 사건의 그림자였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율법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율법인가? 히 10:1.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보배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두 가지 율법, 곧 도덕률과 의문의 율법을 특권으로 받았다. 도덕률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창조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그 율법의 요구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고 항상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의문의 율법은 사람이 도덕률을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다. … 이 둘은 서로 분명하고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094.

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을 예증(예표)하기 위해 동물 희생을 가르쳤지만, 어떤 점을 이해해야 했는가? 히 10:2~4, 6.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대적 예배 제도의 창시자이시며, 그 제도에서 예표와 상징으로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그림자로 드리우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가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잃어버렸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과 수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33.

다.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일 1:7.

“모든 희생에는 교훈이 담겨 있고, 모든 의식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가 있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33.

“인간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수건을 벗기고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대의 전 종교에 많은 빛을 반사시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 모든 제도가 무의미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종교 제도는 그들에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설명할 수 없는 것들뿐이다. 그들은 십계명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원형을 만난 표상, 곧 그림자의 의식에 대단한 중요성을 두고 거기에 집착한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097.

3. 의식 제정

가. 이런 방법으로 동물을 제물로 바친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는가? 창 3:21, 24; 4:2~4; 히 11:4.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 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였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 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다면 사람이 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贖錢)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부조와 선지자, 68.

나. 백성들이 시내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이후 어떤 제도가 더 발전하였는가? 출 25:8.

다. 피 흘림이 왜 필요했는가? 히 9:22. 희생양은 무엇을 상징하였는가? 고전 5:7; 벰전 1:19; 요 1:29.

“그는 그의 청중을 의문의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갔다. 즉,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의 제사장 직분, 그분의 사역의 성소로, 유대 시대에 그림자를 드리운 가장 큰 목표였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모든 희생 제물의 원형이셨다. 사도는 예언과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대에 따라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될 것임을 보여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훌륭한 시인(다윗)을 통해,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후손을 추적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 또한 기록한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땅에서 그의 영접과 대우가 어떠할 것인지를 성경에서 증명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와 죽음에서도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속주임을 보여 주었다.” -바울의 생애, 103, 104.

4. 그것은 왜 폐지되었는가?

가. 성전에서 의식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원의 소망으로 믿었는가? 사 1:10~15.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제도를 포괄하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중심이다.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은혜의 시간, 모든 시대에 타락한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구속주이다. …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를 이전 제도로 되돌려 놓는 실체 또는 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림자는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모형적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범법으로 인해 구원의 계획이 필요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고 존귀하게 되었다. 복음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것은 오실 구주를 그들에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영문시조, 1893.2.20.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지였으며 그곳에서 가장 큰 배타성과 편협성이 발견되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독특한 특권으로 되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의식과 전통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유대교 관습에 부여된 독특한 신성함이 새로운 믿음의 빛 속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임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분개하게 되었다.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다. … 어떤 사람들은 의식법에 대해 열심이었다.” -바울의 생애, 71.

나. 모든 희생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셨는가? 사 1:16~18; 시 51:17~19.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희생 제도가 할 수 없었던 무엇을 가져오는가? 행 4:12; 히 7:28, 19.

“이제 더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그리스도인 위에 비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의 오심을 고대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이 제물과 희생으로 대표되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희생물로 죽으신 우리의 구속주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영문시조, 1893.2.20.

5. 오늘날 우리에게 의식법이 필요한가?

가. 성경에 의식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딤후 3:16.

나.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히 8:1~5; 3:1.

다. 이 새 제도가 하늘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히 4:14~16.

“제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의식, 즉 그들이 지금까지 필수적인 것으로 참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예식에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의식을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갈망이었다. 더 이상 힘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의식을 계속하는 것은 여호와께 모욕이 될 것이다.” -성경주석[화잇 주석] 5권, 1139, 1140.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 -사도행적, 230.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20

1. 제칠일 안식일이 구약의 그림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2. 도덕법과 의식법이라는 두 율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너무 많은 죽음 때문에 동물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잃었는가?
4.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의식 제도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5. 오늘날 우리는 성소봉사를 연구함으로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인도 북부 연합 파탄콧 예배당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파탄콧(Pathankot)은 인도 편자브 주에 있는 도시이다.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편자브 주, 히마찰프라데시 주, 잠무 카슈미르 주의 여행 중심지이다.

개혁 기별은 2015년에 이곳에 도착했고 우리 회원은 수년에 걸쳐 성장했다. 우리의 안식일 성경 공과의 배포를 통해 많은 소중한 새 영혼들이 현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파탄콧 도시 지역의 인구는 159,909명이며 문맹률은 88.71%이다. 그것은 시발릭 범위(히말라야 산기슭의 일부)와 차키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파탄콧 근처의 유명한 장소로는 관광객을 위한 공중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 샤푸르 칸디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중력 댐인 란지트 사가 댐이 있다. 주변 산업은 우유, 밀, 쌀, 직물, 재봉틀, 스포츠 용품, 설탕, 전분, 비료, 자전거, 과학 기기, 전기 제품, 공작 기계, 소나무 기름의 생산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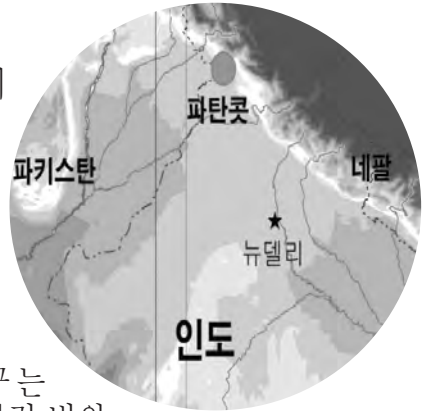
파탄콧의 종교는 힌두교 88.89%, 시크교 8.01%, 기독교 1.73%,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강그라와 덜하우시의 그림 같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차키 강이 가까이 흐르고 있는 이 도시는 자무와 카슈미르, 달후지, 참바, 강그라, 다람살라, 맥레오건, 좌라지, 친트푸르니를 넘어 히말라야까지. 인근 주위의 많은 시골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파탄콧에 온다.

파탄콧은 철도 및 도로로 인도의 나머지 지역과 잘 연결되어 있으며, 편자브, 히마찰프라데시, 델리, 하리아나, 잠무 및 카슈미르의 다른 도시와 민간 및 공공 부문 버스 서비스의 광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주요 목적지로는 델리, 마날리 찬디가르, 잠무, 다람살라, 달하우지, 암리차르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과 같이 파탄콧은 여행자를 위한 교차로 역할을 하며 잠재적으로 전도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지을 자원이 없다. 그래서 인도 파탄콧에 주님을 위한 기념비를 짓기 위해 여러분의 후한 헌금을 친절하게 보내려면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각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파탄콧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 정로의 계단, 37.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23~35, 37~41; 교회 증언 5권, 635~650.

첫째 날(일요일)

2월 26일

1. 신약과 구약 시대가 동일한 방법임

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므로(말 3:6, 히 13:8), 그가 창조하신 모든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의 갈망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시 78:38; 겔 18:32; 벧후 3:9.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 공의의 칼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그들이 자유케 되었다. 그분은 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26.

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는 위대한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대하 7:12~14.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반향되었는가? 요일 1:9; 2:1.

“사사로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하여야 한다. ...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는 무리 앞에서 고백하고, 개인에게 대하여 잘못된 것은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여 고쳐야 한다. 만일,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자로서 과거에 독설을 말하였거나, 가정과 교회와 또는 이웃에게 잘못하여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이간시키고 분쟁을 일으켰거나, 또는 무슨 좋지 못한 일을 행하여 다른 사람까지 그 죄에 빠지게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과 해를 당한 자들 앞에서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 복음교역자, 216, 217.

2. 용서를 받는 첫 번째 단계

가.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므로(요 16:8)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시 86:5.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된다. 죄인은 여호와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함의 미(美)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된다.” -정로의 계단, 24.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개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보았다고 선언한 열매는 이와 같은 열매였다.” -사도행적, 324, 325.

나. 오순절 날의 예를 보면 양심이 죄를 자각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행 2:36, 37.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7.

다. 생애의 변화를 가져오는 뉘우침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행 2:38.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에 대한 희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를 받아야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614.

“참된 고백은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개의 죄들을 인정한다. 그 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시되어야 할 그런 성격의 것일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개인들 앞에 고백되어야 할 잘못들일 수도 있고, 회중에게 알려져야 할 일반적인 형태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고백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대가 범한 바로 그 죄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639.

3. 거짓 회개의 예

가.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을 회개하였는가? 마 26:14~16, 47~49,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 27:3, 4.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그분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에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722.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의 자복은 진정하지 못하고 간절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할 적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여차여차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기는 비난받는 바 그 일을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 -정로의 계단, 39, 40.

“모든 사람은 믿음과 기도로써 복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강제로 범죄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자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불의가 양심을 이기기 전에 심령은 범죄의 행동을 의도해야 한다.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죄에 대한 핑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교회증언 5권, 177.

나. 이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회개인지 설명하라. 마 27:5; 고후 7:8~11.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있으며,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계획에 들어간다. 그러나 추구해야 할 유일한 안전한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대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제안한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맡기고 창조하시고 파괴하실 수 있는 그 권능에 의해 빚어지는 데 복종하는 대신에 미래를 위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청소년들이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 자신의 동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뜻과 성향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서 멀어지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청년 지도자, 1893.3.23.

4. 진정한 회개의 예(시 51편)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 32:3, 4.

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직접 폭로한 후(삼하 12:1~12),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삼하 12:13.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722.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가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부조와 선지자, 725.

다. 베다니 사람 시몬의 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눅 7:40~48. 평화와 화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시 32:5; 렘 3:13; 요일 1:9.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빛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빛을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오백 데나리온의 빛이 오십 데나리온의 빛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 566-568.

5. 용서의 선물

가. 우리가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깊고 진정한 슬픔에 빠질 수 있는가? 행 5:30, 31; 사 55:6, 7; 히 4:16.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25.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써 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정로의 계단, 31.

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철저히 기대할 수 있는가? 히 12:12; 빌 1:6.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통회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53.

다. 이런 진정한 고백의 결과는 무엇인가? 롬 8: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27

1.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늦은 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일에 참여하려면 어떤 단계를 진지하게 취해야 하는가?
3.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4.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보여줄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5. 죄인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저희를 진리로 기록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완전히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양심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들은 성화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향유할 수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염려하여야 한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32, 33.

참조할 연구교재: 사도행적, 557~567.

첫째 날(일요일)

3월 5일

1. 칭의

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에서든 모든 단계에서든 -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가? 롬 3:24~26.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기록하지 못하므로 기록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 정로의 계단, 62.

나.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잠 4:18; 막 13:13.

2.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향상시킴

가. 용서·칭의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가? 고후 7:1; 히 6:1; 빌 3:12~14.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사도행적, 558, 559.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6.

“인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젖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능력밖에 없으며 그 능력은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나타낸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할 때에 그에게 새로운 도덕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동기의 힘이 주어지며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물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에 이르는 불변의 약속들의 금사슬로 묶이게 될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이 그의 영혼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축복을 받은 자의 언어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 18:35)라고 찬양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6.

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은총의 향상에는 어떤 계단들이 있는가? 벵후 1:5-11.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사다리가 되신다. 기초는 그의 인성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최고의 계단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분의 신성에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한 인간을 감싸고,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다. 우리는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며 그리스도의 키까지 점점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 -교회증언 6권, 147.

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

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가? 고후 4:4~6; 시 119:105; 레 20:7, 8.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실물교훈, 332, 333.

“품성의 완전함이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기초되었다.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공로를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순결하고 더럽힘을 받지않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어떤 영혼에게서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즐겨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셨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30.

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 1:14; 17:17.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사도행적, 520.

“교회의 성화가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고 그분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 때에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사도행적, 559.

4. 허위 주장

가. 성경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요일 1:8, 10; 롬 7:18; 갈 6:14.

“다니엘에게 명예가 부여되자 그 왕국의 지도자들이 질투를 일삼았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를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단 6:4).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가! 질투에 찬 눈들이 매일 매일 다니엘을 노려보았고 그들의 감시는 증오심으로 더욱 심하여졌으나 그의 생활 가운데서 한 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그들에게 그릇되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성화되었노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과 헌신의 생애를 사는 것이었다.” - 성화된 생애, 42.

“거짓 성화는 성경에서 바로 떠나가게 한다. 신앙은 우화로 격하된다. 느낌과 감정이 기준이 된다.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죄가 없다고 공언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한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자유가 있다는 것과 율법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보여 주면 그들은 반발하여 분노와 경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롬 8:7)기 때문이다.” - 믿음과 행함, 53.

나. 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요 14:15; 요일 3:5, 6.

“의는 경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는 한 의로울 수가 없다. 들에 핀 꽃이 그 뿌리를 흙속에 박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공기와 이슬과 소나기와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능력을 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이다. 어떤 사람도, 높거나 낮거나,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지 않는 한 그의 동료 인간들 앞에서 순결하고 힘 있는 삶을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활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의 마음의 교통은 더욱 밀접해져야 한다.” - 교회증언 7권, 194.

5. 성화는 어떠한가?

가. 성화(그리스도인 품성의 성장)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눈에 보이는가? 막 4:26~29.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거룩한 생애의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교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반박할 수 없을 때에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본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적, 511.

나. 무엇이 이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발전과 성취에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가? 고전 15:31; 마 10:22; 빌 3:12-16.

“주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계발될 수 있다.” -사도행적, 564.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에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서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사도행적, 560, 56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34

1. 칭의의 모든 순간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2.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 단순한 용서 이상의 것임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3. 변화의 비결은 무엇인가?
4. 거짓 성결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5. 성화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전체 삶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옛 언약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히 8:8)

“하나님은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다. 그분은 그 백성이 여전히 시내산에 거룩한 영광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약속한 통치에 반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청년 지도자, 1901, 11, 21.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370~373.

첫째 날(일요일)

3월 12일

1. 노예 상태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함.

가.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 상황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지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출 20:1, 2; 신 5:15.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흥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과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71.

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율법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이해하도록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출 19:1, 5, 6.

2. 죄의 사악함

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해한 후에도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출 19:8; 24:3.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엄청난 위엄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371, 372.

나. 이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신 27:26; 겔 20:11; 레 18:5.

다. 우리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렘 17:9; 사 1:5, 6; 64:6.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하였다.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524.

3. 언약을 비준함

가. 모세가 율법의 저주와 축복의 모든 조건을 낭독한 후,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출 24:7.

“노에 생활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타락한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광범위한 원칙을 온전히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십계명의 의무를 더 완전히 이해하고 준행하기 위해 십계명의 계명을 예시하고 적용하는 추가적인 규례가 주어졌다. 십계명과 달리 이것들은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506.

“모세는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실 규례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을 기록하였다. 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읽어 줄 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의 엄숙한 서약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가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반복하였다.” -예언의 신 1권, 240.

나. 그러한 합의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즉시 무엇을 하였는가? 출 24:6, 8.

“이와 같이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에 비준하였다.” -영문 시조, 1880.5.6.

“여기서 백성들은 언약의 조건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었으며,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상징한다. 조건은 백성들 앞에 명백히 제시되었다.

그들은 그들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이 주어진 모든 조건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의무를 준수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동의했다. 율법의 원리는 이제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는 데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세부 사항을 받아들였다.” -원고 모음1권, 114.

4. 잃어버린 세대

가.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민 26:63~65.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실물교훈, 311.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들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적으로 완고한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사물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시대의 소망, 171.

나. 이 “오래된” 언약의 문제는 하나님이나 백성에게 있었는가? 히 8:8.

“‘본성적인 기독교인!’ 이 기만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 옷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상적인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경험과 수난, 극기와 자아 희생의 삶에 관하여 실험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자기 의는 누추한 누더기와 같다. 사랑스런 교사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간에 그분을 따르라. 가장 어렵고, 친구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면서 그분을 따르라” -교회증언 2권, 177, 178.

“스스로 부자유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련하고 별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 된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고 자랑한다. 그보다 더 큰 기만이 있을 수 있을까? 선지자가 말 한대로 저들은 ‘이것이 여호와와의 전이라’(렘 7:4 참조)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저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거래와 불의한 물물교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228.

5. 또 다른 언약이 필요함

가. 옛 언약은 소망이 없으므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렘 31:31~33.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 주의적 신앙 생애를 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을 때에만 소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077.

나. 이러한 신성한 도움의 약속을 받아들인 성경의 몇몇 영웅의 이름을 말하라. 히 11:4~32.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특징지어 왔으며 그들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취게 하려고 세상 앞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용장이었다. ... 바벨론 궁정에서의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 -오늘의 나의 생애, 6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41

1.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률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인들의 동일한 경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2.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선뜻 맺었는가?
3.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와 유사한 약속을 하도록 쉽게 인도되는가?
4.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 동안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5. 국가적 배교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어떤 예가 있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하나님의 율법은 이(새로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371.

참조할 연구교재: 산상보훈, 45~77.

첫째 날(일요일)

3월 19일

1. 두 가지 언약

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가? 시 50:5.

나. 그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 1:18.

다. 어떤 종류의 언약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히 8:6~13.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겔 20:11; 레 18:5).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26).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33, 34).” -부조와 선지자, 372.

2.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 우리를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에서 무엇이 갈라놓았는가? 사 59:2.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창 2:17; 롬 6:23.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형벌이 내게 떨어지게 하라. 내가 사람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게 하라.’ 범법으로 인해 온 세상이 사형 선고로 받았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음성이 들렸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왕복과 왕관을 벗으시고 온 하늘에 대한 그의 지휘권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에 인성을 입으시고 모든 언약함을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시험을 견디게 하셨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슬픔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그분은 천사들의 경배를 뒤로 하시고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에게 의해 광기에 휩싸인 폭도들의 모욕과 저주를 받으셨다.” -영문시조, 1900.6.27.

나. 하나님은 이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어떤 마련을 하셨는가? 욥 33:24; 또 한 요일 4:19; 계 13:8과 비교하라.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事後考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 알게 하신 그 비밀’(롬 16:25)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요 3:16) 였다.” -시대의 소망, 22.

3. 여인의 후손

가. 옛 뱀, 마귀가 에덴에서 우리의 시조를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약속을 하셨는가? 창 3:15.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 속에 도덕적인 죽음의 씨앗을 간직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이기주의와 방종의 부정한 영향과 죄에 대한 유혹을 저항할 수 없다.” -교회증언 8권, 315, 316.

나.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창 22:18; 갈 3:8, 16; 히 2:14.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음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시대의 소망, 663.

다. 아브라함은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갈 3:6~8), 그런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창 26: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죄의 근원인 자의 멸망을 확정하였다. 사단이 멸망할 때 악을 유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속죄는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에서 또 다른 반역의 위험이 없을 것이다. 이 흑암의 세상에서 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만이 하늘에서 죄를 막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 거처를 가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지 않겠는가? 천사들은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을 통해서이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들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의 천사들처럼 악에 대해 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성은 천국에서 실패했다. 인간의 완전은 행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했다. 땅이나 하늘에서 안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132.

4. 언약의 비준

가.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지만, 언제 비준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새 언약 또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히 9:16.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다.” -부조와 선지자, 370, 371.

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비준되지 않았다면 십자가 이전의 하늘 왕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히 6:13~18.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써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히 6:18)로 확정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371.

“그분은 서약하여 말씀하셨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그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렘 31:3)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사 54:8). 인간의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의심과 의문에 대한 모든 이유를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내어 밀은 떨리는 손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주님께서 보증과 안전을 크게 증가하시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도우신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의 조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는 친구의 서약이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면 보증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맹세로서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히 6:17).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이상 있겠는가?” -그분을 알기 위하여, 262.

5. 마음 판

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는가? 히 9:15.

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심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호소를 하시는가? 고후 6:2.

“돌 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 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 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5:1, 3:31, 8:3, 4).” -부조와 선지자, 372, 37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47

1.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가?
2.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를 하나님은 왜 대비하셨는가?
3.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계속 염두에 두시기 위해 어떤 예를 사용하셨는가?
4. 아브라함이 새 언약 아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 그대는 창조주와 어떤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종교 개혁의 이유

“예수님께서서는 시험 당하게 될 자들의 구원자가 되는 법을 아시기 위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사람을 속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구주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종류의 위선을 심하게 견책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죄들을 잘 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읽으신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탄원하시며 죄인들과 변론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셨다는 한 가지 면에서, 그분은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두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더럽혀진 생애로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 버린 사람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는 복음의 은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는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한다. 그 이후에 그의 생애는 새로운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는 의로운 품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심령 안에 받아들여지고 간직된 신령한 진리의 원칙들은, 우리가 다다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도덕적 탁월함의 높이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

여기에 사람들이 해야 할 한 사업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인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의 도덕적 품성의 흠을 분별해야 하며, 어린양의 보혈로 자신의 품성의 옷을 씻어 죄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 시기와, 교만과 악의, 속이는 것, 투쟁, 그리고 죄악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혜자요, 그분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며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서부터 깨끗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가운데 살기를 계속하는 한, 죄인을 값없는 은혜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쳐 오고,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범죄의 범위를 깨닫는다면, 그는 자신의 길을 개혁할 것이며, 자신의 구주로부터 얻어진 힘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새롭고 깨끗한 생애를 이끌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293-295.

첫째 안식일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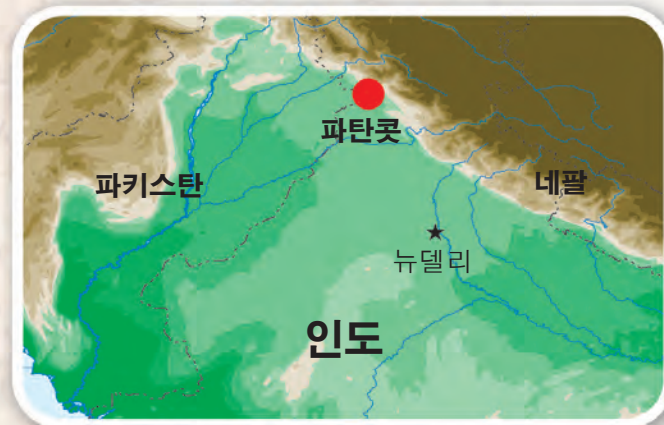


1월 7일

러시아 북부 코카서스 아디게아에 있는 교육 및 보건 센터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2월 4일

세계 재난 구호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3월 4일

인도 북부 연합 파탄콧 예배당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